

## 35th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에 다녀와서

(2018 년 6 월 21-24, Teaneck, NJ, USA)

1972 년 (초대 회장 이광수 NYU 약리학 교수) 설립된 미주 의대 동창회는 1976 년 11 월부터 거의 해마다 학술대회를 열어왔다. 초창기 부터 장학기금을 모금하여 든든한 기금을 마련하고 China Medical Board 와 연대하여 장학생선발, 사회봉사,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한 바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금년에도 46 대 한승신 미주동창회장의 주최로 제 35 회 Medical Science Convention 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술대회의 중심의제는 'New Horizon in Medicine 중에서도 Regenerative Medicine' 으로 계획하여 대성공을 거두면서 행사를 마쳤다. 국내외로 190 여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하였고 서울에서 홍정용 의대 총동창회장, 신찬수 의대학장,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과 김연수 부병원장, 강사로 참석한 여러분의 교수진들이 서울에서 참여했다. 한국의 의학발전을 미국에 소개했으며 많은 미주 동문들과 허심탄회하게 그 장단점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에는 더 많은 젊은 세대의 동문들( Green Project)이 참여하여 보여준 적극적인 연구발표는 우리동창회의 앞날에 희망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현재 미주 의대 총동창회에는 1,150 명 정도의 동문들이 있고 근래에는 뜻밖에도 미국으로 이주하는 젊은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의료제도의 변화로 더 많은 동문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미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윤상래님, 차기회장 신응남님, 전 12 대 회장 오인환님 이 함께 축하의 인사와 따뜻한 교류를 가졌다. 서울에서 참석한 홍정용 동창회장의 인사말에서 해마다 이 행사에 참여하던 강대회(87 졸업) 전 의대학장이 서울대학교총장에 당선되어서 이번이 없으면 7 월부터 직무를 시작한다는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하여 참석한 모든 분들의 박수를 받았다. 권이혁 전 총장에 이어서 의과대학에서 총장이 되는 것은 수십 년 만이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있는 신임 강대회 총장은 학생들과 젊은 GP 동문들에게 인기가 많은 진취적인 뛰어난 보건행정가(이곳 Johns Hopkins University 에서 PhD)이다.

신찬수 학장이 드리는 제 4 차 행사에서 금년에는 임종식(57 졸업), 한기현(63), 김성환(71) 세 분에게 미주함춘공로상이 그리고 김원정(75)에게 학장상 수상식이 있었다. 한승신 회장이 드리는 멘토상의 김의신(66)교수, 그리고 CME 에 도움을 준 신규호 교수(68), 이건일(68) 미주 서울의대 총동창회 지난 해 회장, 김영애(김성환 부인)수필가님들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친선 골프대회, FDR Home, Library and Museum & Vanderbilt Mansion , Korean Community Center 방문, New York City Tour 가 있었고,또 동문들이 출간한 임종식(51 입학) 자서전, 한혜원(61) 오페라전문기,

한수웅(61)수필집, 강창욱(61)영문소설, 서윤석의 시집과 수필집, 이원택( 71) 미주시인협회 회장의 서적들, 김영애 수필가의 주옥같은 서적들이 동창회 기금을 위하여 판매되었다. 22 일 금요일 Banquet 에서는 Line Dance 가 있었으며 동기별 장기대회에서는 71 년 졸업 동기들의 '신 흥부전'이 일등을 하였고, 23 일 토요일 Grand Banquet 의 동문 듀엣가요제에서는 주광국(68 년)과 박은경(00 년)동문의 '잘했군 잘했어'가 일등을 하였다.

학술대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많은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그 중 미주 한인들이 당면한 불공평한 Stomach Cancer(위암)의 문제점을 박찬형((62) 동문이 제시하여 오인환( Leadership and Group IQ Institute), 한혜원, 임종식, 한승신, 한수웅 등 여러 연사들이 함께 그 대책을 의논했다. 한인들에게 필요한 매년 EGD(상부소화기내시경)가 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점은 개선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현 보험정책으로는 동양인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대사로 알려진 한혜원 (61) 교수가 치료와 연구에 몰두한 수 십억의 인구가 해당되는( Asia Population 에 많은) Hepatitis(간염)에 대한 Hepatitis B vaccine 과 다른 간염, 간암들의 치료 예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꾸준한 연구의 덕분으로 젊은 한국사람들은 이제는 H-B 는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이미 많은 효과를 보아 희망적이지만 중년 이후의 미주에 거주하는 수 많은 한인들이 아직도 자신도 모르게 전염성이 있는 보균자이라는 놀라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 감염자들은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간경화증과 간암으로 진행된다. GP 강사진의 Program 에서는 Yale 대학의 호흡기내과 강민중 교수의 '담배흡연과 Mitochondrial Damage, COPD, Aging' 연구를 비롯하여 남명호, 오무연, 박종철, 남영제, 서귀숙, 손경민, 이준규등 뛰어난 국내외 명문대학의 강사진들이 열렬한 학문적 발표가 있었다.

Non CME 강의실에서는 은퇴한 동문이나 같이 참여한 배우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강좌에는 서울대에서 인문학을 연구한 최도빈 교수가 1776 년 후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시작으로 , 철학에서 떨어져나온 경제학의 발전 , Adam Smith 의 국부론 , 산업 혁명,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왕정에서 벗어나는 민주주의의 형성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강좌가 있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시인 수필가인 이원택의 "의사들의 외도", 김영애 수필가의 "수필이란 무엇인가", 한혜원 동문의 "오페라 감상", 서정훈 님의 "상속법 소개", 서성환 공학박사의 "스마트폰 사용법", 최광휘 성형외과 전문의의 "Aging Face 성형에 대한 강의", 작년에 이어 Joshua Grayson 음악박사의 "George Gershwin's music & New York City"라는 제목의 연주와 소개가 있었다. 모든 강의를 매우 흥미로웠으나 그중에서도 역사에 조예가 깊은 온기철(71)동문이 발표한 "대원군과 민비 그리고 서재필" 이야기는 많은 청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아직도 강대국의 틈에서 살아가는 우리민족은 미국과 북한의 회담으로 예측을 불허하는

정치적인 변화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한국의 장래에 대하여 우려가 앞선다. 온기철 동문이 이날 보여준 1860년부터 1960까지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났던 괴롭고 창피스러운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는 말아야하는데.... 18세에 무과에 급제한 육체와 정신적으로 사고방식이 뛰어난 서재필 박사는 대부분의 개화파와 같이 종로구 화동(구 경기고등학교 자리) 언덕에 살다가 김옥균과 같이 갑신정변에 무관책임자로 가담했다. 그러나 3일천하로 그정변이 실패하여 삼족의 멸함을 받았다(노비가 업어서 탈출시킨 동생의 아들만 생존). 그는 자객들을 피해서 서광범과 같이 일본을 거쳐 San Francisco로 왔다. 남들과 달리 투지력이 강하여 막노동도 감수하며 살아 남았다. 그 후 미국에서 우리 민족으로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 의사가 되었던 사람이다. 10여년 후 정권의 변화로 고종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미국시민으로 안경을 쓰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고종황제 앞에 나타나기도 했으며 개인 재산을 다 털어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문을 세우는 등 개화에 앞장을 섰던 선각자였다. 미국정부의 각료였던 우정국장의 마부로 일을 하다가 그 집의 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되어 두 딸을 두었으며 해방 후 하지중장이 시작한 (안재홍 군정청 장관)군정청에서 독립된 조국을 위하여 일했다. 그는 독립운동에 평생을 보냈으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사상이 기본이 되는 계몽운동을 우리 민족에게 보급하려고 노력하던 역사적인 인물이다.(워싱턴 DC의 한국총영사관 정문 앞 동상 참고) 이 점에 대하여서는 곧 따로 온기철 동문의 기고가 예상된다.

이처럼 내용이 다양하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모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한 한승신 회장단(부인 동문 김정아(75) 부회장)을 비롯하여 유영걸(76) Convention Chair 님, 남명호(81) Scientific Chair 님, 남영제(94) 교수, 신규호(68) 교수 그외 우리 동창회를 위하여 물심으로 헌신하신 국내외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내년 제 36차 행사는 정균희(72) 신임회장단에 의하여 2019년 3월 21일부터 Pacific Palm, LA, California (2017년 3월과 같은 장소)에서 열릴 것이다.

시계탑 편집장 서윤석(22회 68년졸업)